

임신기 부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강 수 경

가천대학교

김 해 미

세살마을연구원

정 미 라[†]

가천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 부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서울·경기지역의 임신기 부부 281쌍(총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한 APIM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임신부의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로 가는 간접경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불안정 성인애착, 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부관계 질,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 교신저자 : 정미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13120)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Tel : 031-750-8660/ E-mail : mrchung@gachon.ac.kr

임신은 임신부 개인의 일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일로 간주되는데, 이는 임신과 출산이 가족전체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에 따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정혜경 외, 2003). 특히 임신부는 갑작스런 신체·심리적 변화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인식하며, 정서적으로 예민해져서 배우자와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김은혜, 이선희, 이운경, 김민주, 도현심, 2017).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임신부 개인에게는 물론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 시기의 중요한 변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신부가 부부관계 질을 높게 인식하고 배우자의 지지가 많은 경우 임신부의 산전·후 우울감과 불안감, 스트레스가 낮고 태아애착이 높다고 보고한다(백현정, 2009; 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반면 부부관계 질을 낮게 인식하는 임신부는 태아에 대한 유대감이 낮아져 태아를 부정하거나 은폐하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다(성미혜, 주경숙, 2011; 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이는 임신기부터 부부관계 질을 높이고 부부갈등을 낮추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부부관계 질이 임신부의 심리적, 정신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임산부의 부부관계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초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특히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으로 성인애착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우수정, 이영, 2010; 이운정, 2016; Molero, Shaver, Fernández, & Recio, 2017). 성인애착이란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 맺었던 관계에서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타인과의 관계패턴을

말하는 것으로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의 대인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인애착은 주로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구분되고, 불안정형에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있다. 불안애착은 거절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높은 성향으로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하며 확인 받으려고 해서 배우자와 갈등을 야기한다(Fraley, Waller, & Brennan, 2000; Fraley & Shaver, 2000). 회피애착은 타인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여 회피하는 성향으로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으며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여 관계가 소홀해지게 된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이 높을수록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여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및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여 부부관계 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한혜영, 현명호, 2006).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관계의 역동성을 살펴본 이운정(2016)의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에 자기효과를 주며, 부인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남편의 결혼만족에 상대방효과를 준다고 나타났다. 또한 Molero와 그의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부정정서를 통해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과는 나타났으나 상대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개인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역동이 전체적인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 질을 연구할 때 자기효과와 더불어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Kenny, 1996).

성인애착은 심리적 특성인 갈등해결전략과도 연관성이 있다(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 임신기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상호 적응해가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조성경, 최연실, 2007). 이 시기의 부부 갈등은 전반적인 결혼생활 만족도 뿐 아니라 태어날 아기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기 갈등의 적절한 해결이 중요하다(최유리, 2013). 즉 부부 간 갈등의 존재 여부보다는 갈등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김수민, 이지연, 2015). 갈등해결전략은 갈등을 적절히 다루고 해결하는 기술로, 갈등해결전략을 잘 수립한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의 요구를 구별하고, 자신의 요구와 상대방의 요구를 적절히 조율해 협력할 수 있다(이명신, 김유순, 2016). 갈등해결전략에는 타협, 양보, 통합, 회피, 지배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 타협, 양보 전략을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볼 수 있다(Rahim, 1983).

부부의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성향이 높을수록 지배, 회피전략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민, 이지연, 2015). 불안애착 성향이 높은 사람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등상황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고, 쉽게 이성을 잃고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적다(Overall, Girme, Lemay, & Hammond, 2014). 회피애착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과 유대관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상황을 피하고 덮어두는 경향이 있어 주로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안자경, 장문

선, 2016). 김광은(2005)의 연구에서는 불안과 회피와 같은 불안정 성인애착유형 부부가 안정형 부부보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갈등해결전략은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다. 부부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갈등해결전략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성과 철회와 같은 회피적인 전략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선림, 이신화, 신지영, 천성문, 2012). 결혼초기 부인의 양보와 타협 같은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 사용은 부부관계를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하고(Kulik, Walfisch, & Liberman, 2016), 지배적 전략은 부적응적이라 평가하게 한다(Kulik & Havusha-Morgenstern, 2010). 이명신과 김유순(2016)의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전략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적 공격 전략은 부인의 언어적 공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방효과만 유의하였다. 이선미와 전귀연(2001)의 연구에서도 상대방의 언어적 공격이 아내와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남편의 이성적 대처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상대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능동적이고 상호협동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배적이거나 회피하는 간접적 전략의 사용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전략에도 영향을 받으며 부부의 갈등해결전략은 상호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임신부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갈등 해결전략, 부부관계 질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고, 기혼여성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수민과 이지연(2015)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성향이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억제효과를 밝혔고, 회피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용주와 장현아(2017)의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수진과 서수균(2013)의 연구에서는 커플 사이에서 여성의 안정애착이 자신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자가 안정애착성향이 강할수록 상대방인 남자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으로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내와 남편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부부를 쌍으로 연구한 것은 그만큼 많지 않다. 하지만 부부관계란 단순한 2차 관계라고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부의 특성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역동적인 관계이므로 부부를 쌍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규련, 2015). Kenny(1996)는 이러한 점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관계인 부부나 커플을 분석할 때 자기-상

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제안하였다. APIM모형분석은 부부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남편과 부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그 효과의 차이는 어떤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APIM모형을 사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강지영, 이인수, 2017;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김진아, 2016; 정복자, 조성희, 2017). 또한 기존연구들은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 구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고, 매개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 부부관계 질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기는 결혼초기로 이 시기의 부부관계가 앞으로의 결혼생활에서도 지속되어 태어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기 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즉 임신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신기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부부 쌍 분석을 통해 임신부와 배우자의 개인내적 특성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사용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APIM모형을 통해 심도있게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

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관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자치구의 S마을 임신부교육에 참여한 임신부와 배우자 281쌍 총 562명이다. 모두 첫째아를 가진 임신기 부부이고, 임신부의 평균연령은 32세 ($M=32.11$, $SD=3.97$), 배우자는 34세($M=34.19$,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N=562$)

변인	하위범주	$M(SD)$ or $n(\%)$	
		임산부($N=281$)	배우자($N=281$)
	부부 평균 연령	32.11(3.97)	34.19(3.11)
연령	30세 미만	57(20.3)	13(4.6)
	30세 - 40세 미만	215(76.5)	245(87.2)
	40세 이상	8(2.8)	16(5.7)
최종학력	고졸	9(3.2)	21(7.5)
	대졸	219(77.9)	193(68.7)
	대학원졸	51(18.1)	59(21.0)
취업여부	취업	131(46.6)	266(94.7)
	비취업	53(18.9)	4(1.4)
	육아휴직중	96(34.2)	4(1.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14.2)
	300만원 - 400만원 미만		69(24.6)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0(17.8)
	500만원 - 600만원 미만		48(17.1)
	600만원 이상		70(24.9)
임신주수	10주 미만		8(2.8)
	10주 - 20주 미만		38(13.5)
	20주 - 30주 미만		114(40.6)
	30주 - 40주 미만		119(42.3)

note. 결측치에 따라 전체 사례수에 일부 차이가 있음.

$SD=3.11$)로 나타났다. 부부연령은 임신부(76.5%)와 배우자(87.2%)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임신부(77.9%)와 배우자(68.7%)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취업여부는 임신부는 취업(46.6%)과 육아휴직(34.2%)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배우자는 취업(94.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24.6%)와 600만원 이상(24.9%)이 가장 많았고, 다른 소득 구간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주수는 20주-30주(40.6%)와 30주-40주(42.3%)가 가장 많아서 대부분이 임신 중·후반기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친밀관계경험 척도 개정판(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Questionnaire: ECR-R)을 김성현(2004)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불안애착 18문항, 회피애착 18문항으로 총 36문항이다. 불안애착은 유기에 대한 공포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며, 회피애착은 타인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회피를 말하는 것으로 두 하위요인 다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나타낸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된 애착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 불안애착 .89, 회피애착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임신부에서는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 불안애착은 .90, 회피애착은 .90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에서는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 불안애착은 .92, 회피애착은 .85로 나타났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Rahim(1983)의 갈등해결전략 척도(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 ROCI-II)를 Wilmot와 Hocker(2001)가 수정하고 홍종배(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타협, 양보, 통합, 회피, 지배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으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와 지배의 신뢰도지수가 .5를 넘지 않고, 요인부하량도 .4를 넘지 않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전략만을 측정하고자하여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으로 알려진 타협, 양보, 통합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타협은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절반정도 수용하여 중간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하고, 양보는 상대방의 바람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바람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는 갈등 상황을 피하고 갈등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며, 지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타협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남학생 .55, 여학생 .66, 통합은 남학생 .72, 여학생 .68, 양보는 남학생 .73, 여학생 .6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임신부 .71, 배우자 .73, 타협은 임신부 .67, 배우자 .63, 통합은 임신부 .75, 배우자 .85, 양보는 임신부 .80, 배우자 .80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질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이 개발한 한국형 부부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교류영역 16문항, 정서영역 16문항, 인지영역 16문항,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 부부의 정서적인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영역을 제외한 교류영역과 정서영역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교류는 부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서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를 측정한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정현숙(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5, 교류는 .92, 정서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임신부 .96, 배우자 .96, 교류는 임신부 .92, 배우자 .94, 정서는 임신부 .92, 배우자 .94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선행연구

를 고찰하고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임신기 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문항이해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G대학에서 주최하는 서울·경기 지역의 임신부 교육에 참여한 임신기 부부를 대상으로 2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었다. 각 자치구의 기관에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교육 실시가 설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 실시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가량이었으며, 설문지는 임신기 부부 291쌍(총 582명)에게 배부하였고, 한쪽이라도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은 부부 설문을 모두 제외하여 총 10쌍의 데이터를 제외한 281쌍(562개)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서 SPSS 23과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은 위하여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자기상대방효과를 보기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을 실시하였고, 임신부와 배우자의 자료를 하나의 모델 안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둘의 자료를 합하여 표준화한 후

다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Kenny, Kachy, & Cook, 2006). 또한 Cook과 Kenny(2005)의 제안에 따라 효과측정 후 등가제약모형을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 간 크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χ^2 차이검증은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의 χ^2 값과 본 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유의미한 경우 등가제약을 했던 경로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다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2단계 검증을 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모형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간명성, 해석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χ^2 보다 CFI, TLI, RMSEA, SRMR를 활용하였다. CFI와 TLI는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고, .90이상이면 보통 수준으로 해석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통,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되며, SRMR은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본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긍정적 갈등 해결전략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 간 상관 및 정규분포성 검증결과

임산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 부부관계 질 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표 2에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의 일부 요인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중 타협은 임산부의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과 부부관계 질의 일부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여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불안정 성인애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부관계 질의 측정모형 검증

주요 변인들의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임산부와 배우자 각각의 불안정 성인애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부부관계 질 총 6개의 잠재변인을 불안정 성인애착 2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3개, 부부관계 2개의 측정변인들이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chi^2=127.845(df=62)$, CFI=.958, TLI=.938, RMSEA=.061, SRMR=.043으로 나타났는데, CFI와 TLI는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은 .08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SRMR도 .08 이하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값도 모두 .4이상으로 적절한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Floyd & Widaman, 1995). 불안정 성인애착의 요인부하량은 임산부 .50~.64, 배우자 .51~.61,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임산부 .57~.93, 배우자 .44~.96, 부부관계 질은 임산부 .90~.91, 배우자 .81~.9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N=56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324***	1												
3	-.274***	-.266***	1											
4	-.130*	-.247***	.519***	1										
5	-.352***	-.328***	.708***	.527***	1									
6	-.433***	-.166**	.394***	.306***	.592***	1								
7	-.367***	-.229***	.393***	.285***	.552***	.832***	1							
8	.114	.169**	-.094	-.089	-.169**	-.124*	-.149*	1						
9	.115	.131*	-.115	-.015	-.152*	-.205**	-.249***	.315***	1					
10	-.141*	-.179**	.102	.091	.101	.025	.066	-.103	-.229***	1				
11	-.138*	-.128*	.171**	.058	.253***	.294***	.264***	-.146*	-.173**	.248***	1			
12	-.199**	-.209***	.152*	.080	.208***	.337***	.367***	-.209***	-.284***	.440***	.599***	1		
13	-.206**	-.237***	.299***	.307***	.393***	.468***	.493***	-.254***	-.265***	.134*	.400***	.486***	1	
14	-.115	-.117*	.225***	.241***	.293***	.393***	.461***	-.181**	-.229***	.088	.372***	.432***	.758***	1
M	2.198	2.649	3.082	2.983	3.236	3.309	3.403	2.094	2.663	3.013	3.229	3.200	3.222	3.345
SD	.508	.504	.337	.372	.416	.467	.462	.554	.510	.396	.445	.455	.467	.465
왜도	.267	-.046	.165	.020	.224	-.433	-.610	.596	-.056	-.254	.124	.074	-.001	-.138
첨도	-.072	-.190	1.521	1.132	-.322	-.402	.553	.925	-.166	1.346	-.128	-.388	-.850	-.954

1. 임신부 불안애착 2. 임신부 회피애착 3. 임신부 타협 4. 임신부 통합 5. 임신부 양보 6. 임신부 교류 7. 임신부 정서
8. 배우자 불안애착 9. 배우자 회피애착 10. 배우자 타협 11. 배우자 통합 12. 배우자 양보 13. 배우자 교류 14. 배우자 정서
* $p<.05$ ** $p<.01$ *** $p<.00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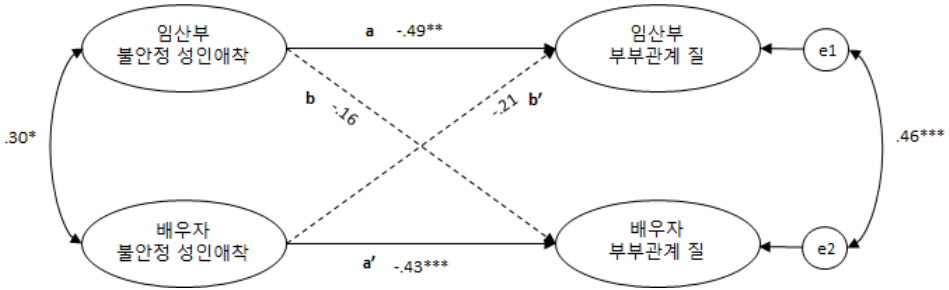
	χ^2	df	CFI	TLI	SRMR	RMSEA
측정모형	127.845	62	.958	.938	.043	.061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임산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검증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한 번의 등가제약

을 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지수는 표 4에 제시되어있듯이 $\chi^2=36.769$, $df=14$, $CFI=.972$, $TLI=.944$, $RMSEA=.076$, $SRMR=.033$ 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분석결과(그림 1),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부관계 질에 자기효과만이



* $p < .05$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1.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CFI	TLI	SRMR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36.796	14	.972	.944	.033	.076	
자기효과 등가제약(a=a')	36.983	15	.973	.950	.033	.072	$\chi^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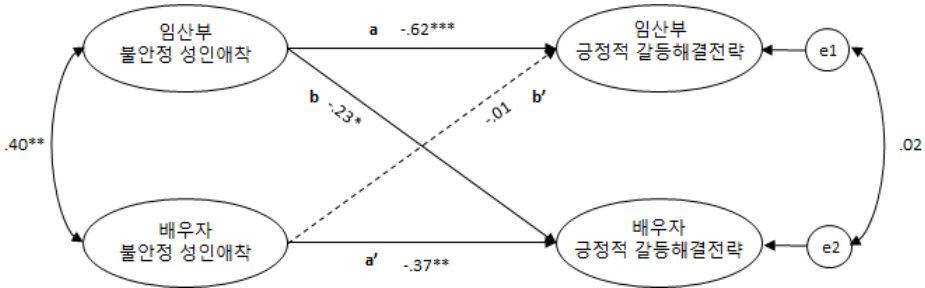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a=a')하기 위하여 등가제약경로에 대한 차이검증을 하였다. 차이검증결과(표 4),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나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부관계 질에 비슷한 자기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임산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검증을 위하여 그림 2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두 번의

등가제약을 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모형적합도는 $\chi^2=34.080$, $df=29$, $CFI=.992$, $TLI=.988$, $RMSEA=.025$, $SRMR=.032$ 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Hu & Bentler, 1999).

분석결과(그림 2), 임신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가 있다고 나타났고,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자기효과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a=a')하고,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에서 임신부와 배우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비교(a'=b)하기 위하여 두 번의 등가제약경로에 대한 차이검증을 하였다. 차이검증결과(표 5), 첫째,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신의 긍정적 갈



* $p < .05$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표 5.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CFI	TLI	SRMR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34.080	29	.992	.988	.032	.025	
자기효과 등가제약(a=a')	38.304	30	.987	.981	.036	.031	$\chi^2(1)=4.22^*$
배우자 갈등해결전략에 등가제약(a'=b)	34.622	30	0.993	0.989	0.032	0.023	$\chi^2(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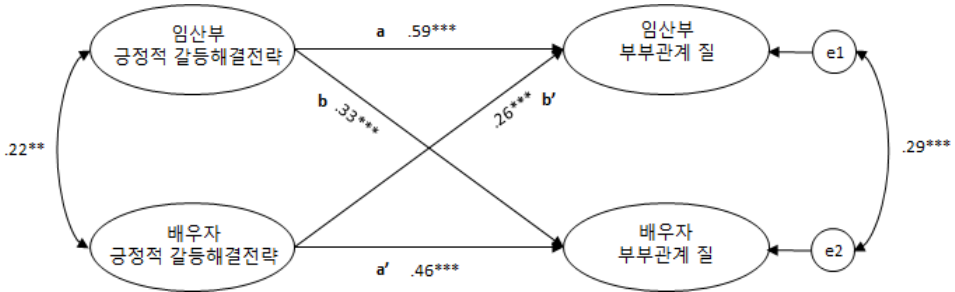
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보다 임신부가 상대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을 예측하는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임산부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검증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네 번의 등가제약을 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되었듯이 모형적합도는 $\chi^2=66.767$, $df=29$, $CFI=.972$, $TLI=.957$, $RMSEA=.045$, $SRMR=.068$ 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분석결과(그림 3),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가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1)임산부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a=a')하고, (2) 임신부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상대방의 부부관계 질에 가는 상대방효과를 비교(b=b')한다. 이어서 (3) 임신부의 부부관계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임신부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자기효과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상대방효과 간 비교(a=b')하고, (4)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



* $p < .05$ ** $p < .01$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표 6.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CFI	TLI	SRMR	RMSEA	χ^2 차이검증
기본모형	66.767	29	.972	.957	.045	.068	
자기효과 등가제약(a=a')	67.253	30	.973	.959	.047	.066	$\chi^2(1)=.48$
상대방효과 등가제약(b=b')	66.871	30	.973	.960	.045	.066	$\chi^2(1)=.10$
임산부 부부관계 질 등가제약(a=b')	69.604	30	.971	.957	.043	.069	$\chi^2(1)=2.84$
배우자 부부관계 질 등가제약(a'=b)	73.610	30	.968	.952	.055	.072	$\chi^2(1)=6.84^{**}$

로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자기효과와 임산부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상대방효과 간 비교(a'=b)한다. 차이검증결과(표 6), 첫째, 임산부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자신의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산부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산부의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에는 임산부의 상대방효과보다 배우자 자신의 자기효과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모형검증

불안정 성인애착과 긍정적 문제해결전략, 부부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분석과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임산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로 가는 경로와 배우자의 불안정

표 7.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χ^2 차이검증
가설모형	127.862	63	.958	.940	.043	.061	
수정모형 (최종모형)	128.853	66	.960	.945	.044	.058	$\chi^2(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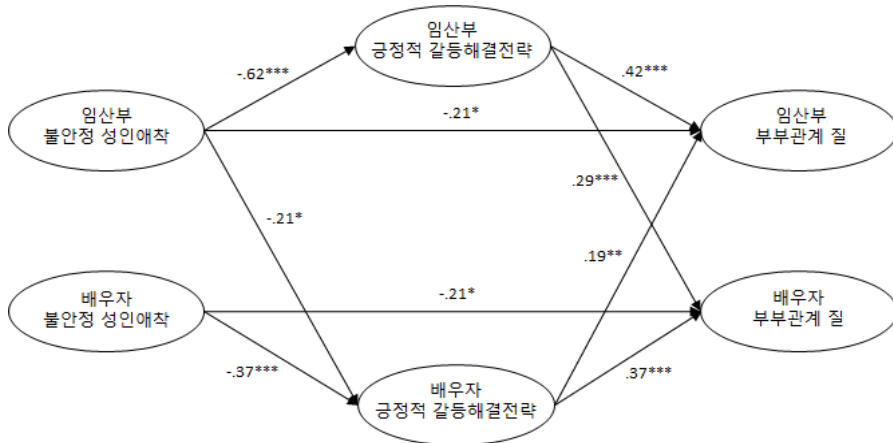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모형(최종모형)

표 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결과

		경로		B	Sobel Test(Z)
직접 효과	자기 효과	임산부	성인애착(임)→부부관계 질(임)	-.38*	-
	배우자 효과	배우자	성인애착(배)→부부관계 질(배)	-.31*	-
간접 효과	자기 효과	임산부	성인애착(임)→갈등해결전략(임)→부부관계 질(임)	-.35***	-3.96
		배우자	성인애착(배)→갈등해결전략(배)→부부관계 질(배)	-.21**	-2.75
	상대방 효과	임산부	성인애착(배)→갈등해결전략(배)→부부관계 질(임)	-.10*	-2.18
		임산부	성인애착(임)→갈등해결전략(배)→부부관계 질(임)	-.05*	-1.95
		배우자	성인애착(임)→갈등해결전략(임)→부부관계 질(배)	-.25***	-3.67
		배우자	성인애착(임)→갈등해결전략(배)→부부관계 질(배)	-.10	-1.88
총효과	임산부	임산부	성인애착(임)→부부관계 질(임)	-.79***	-
		배우자	성인애착(배)→부부관계 질(임)	-.10*	-
	배우자	배우자	성인애착(배)→부부관계 질(배)	-.53**	-
		임산부	성인애착(임)→부부관계 질(배)	-.36***	-

성인애착이 임신부의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과 부부관계 질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해당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구성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있고, 보다 더 간명한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그림 4).

또한, 최종모형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표 8), 첫째,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 자신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신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로 영향을 미친다는 자기효과의 매개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임신부의 부부관계 질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신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임신부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 부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구조적 관계를 APIM모형분석을 통해 탐색하고,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 자기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임신부와 배우자의 자기효과 간 통계적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 불안이나 회피애착과 같은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이 자신이 인식하는 부부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부부관계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 혹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민희, 민경환, 2007; 우수정, 이영, 2010; 이윤정, 2016; Molero et al., 2017), 불안정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대한 상대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Molero 외(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부인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상대방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이윤정(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임신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임신기는 결혼초기로 자신만의 독립된 생활이나 이전의 애착형성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중년부부의 경우 부부관계 질 형성에 부부 간 서로 더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강진경, 신수진, 최혜경, 2001). 특히 성인애착은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된 것(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으로 결혼초기에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 중기보다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은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부부관계에서 행동적 패턴을 만들어, 향후에 부부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상대방의 관계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Molero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과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매개변인으로 넣고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직접적인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 사이에 여러 가지 매개변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부관계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나 대응패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편감 등에 대해 부부가 자신의 성인애착유형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대방효과는 임신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이 강할수록 통합, 타협, 양보와 같은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고, 임신부의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은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자기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김광은, 2005; 김수민, 이지연, 2015; 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 Corcoran & Mallinckrodt, 2000; Overall et al., 2014)과 일치하는 결과로, 불안정 성인애착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 받을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임신부의 불안

정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수진과 서수균(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본 결과는 남편의 갈등해결전략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의 성향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신기는 어느 때보다 남편이 부인을 배려하고 신경 쓰는 시기(김은혜 외, 2017), 이 시기에 부인이 남편을 불신하거나 애정을 갈구하는 등의 불안정 성인애착성향을 보이면 남편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내와 갈등이 생길 때는 그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여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 사용을 적게 사용한다. 따라서 임신기 부부가 자신의 성인애착 성향과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부부관계에서 쓰고 있는 갈등해결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보다 더 적응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갈등해결전략의 효과는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임신부와 배우자가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신이 인식하는 부부관계 질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부부관계 질이 모두 높아진다. 임신부의 부부관계 질은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에 같은 영향력을 갖지만 아내보다 배우자가 자신의 갈등해결전략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들(권선림 외, 2012; 이영숙, 박경란, 2009; Kulik et al., 2016)

과 일치하는 결과로 통합, 타협, 양보와 같은 능동적이고 상호협동적인 전략은 부부관계 질과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부부갈등은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방법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효과뿐 아니라 상대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명신과 김유순(2016), 이선미와 전귀연(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하는 부부관계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또한 임신부가 배우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임신기엔 임신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역할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임신기 부부를 교육할 때 자신이 사용하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결혼생활에서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바람을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전략을 상요할 수 있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연수진, 서수균, 2013; Rahim, 1983). 특히 태아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임신기에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을 높인다면, 향후에 태어날 아이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중요하다.

넷째,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간접경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임신부와 배우자 모두에서 자신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신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부부관계 질로 가는 자기효과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 혹은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김수민, 이지연, 2015; 김용주, 장현아, 2017; 연수진, 서수균, 2013)와 일치하는 결과로, 임신기 부부 또한 성인애착이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안 혹은 회피적 성인애착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거나 순간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경향이 높고, 이는 갈등을 만성화시키고 부부관계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어린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유형에 대해 탐색해보고, 그것이 현재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챌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접경로의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임신부와 배우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임신부의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에는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보다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해야함을 입증한다. 또한 임신부의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다시 임신부의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가 단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부 내에서 한사람의 행동양식은 개인적인 측면만을 보기보다는 관계 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김혜숙, 2008). 한편 배우자 측면에서는 임신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임신부의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배우자의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임신부가 불안정 성인애착성향이 강하면 부부갈등 중에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덜 사용해서 배우자가 인식하는 부부관계의 질도 낮춘다. 이는 임신기 남편의 부부관계엔 부인의 영향이 크단 것을 보여주어 임신기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부인과 남편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임신기 부부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복잡한 상호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APIM모형을 통해서 불안정 성인애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부관계 질의 구조적관계와 변인간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부 간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 경로를 밝혀내서 불안정 성인애착성향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면 부부관계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임신기는 부부가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한 부부관계 질이 이후에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신기 부부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했다는 데에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 교육에 참여한 임신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들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추후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

위요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합쳐서 살펴봐왔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각 하위유형을 따로 살펴보아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향후에는 출산 후의 부부관계나 자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1), 1-23.
- 강지영, 이인수 (2017). 단절 및 거절도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2), 351-373.
- 강진경, 신수진, 최혜경 (2001).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51-66.
- 권선림, 이신화, 신지영, 천성문 (2012). 부부의 심리적 독립, 자기분화,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5(1), 27-42.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민희, 민경환 (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이지연 (2015). 기혼 여성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51-264.
- 김용주, 장현아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61-82.
- 김은혜, 이선희, 이운경, 김민주, 도현심 (2017). 임신기 부부의 첫 부모됨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1), 1-39.
- 김진아 (2016).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8).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백현정 (2009). 임신부의 모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 지각과 정서상태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미혜, 주경숙 (2011).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31-38.
- 성지원 (2015). 대학생의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자경, 장문선 (2016). 성인애착과 이성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7(3), 363-394.
- 연수진, 서수균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411-431.
- 우수정, 이 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양육협력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8(7), 89-97.
- 이명신, 김유순 (2016). 부부권력, 변화주장,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2), 179-213.
- 이선미, 전귀연 (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영숙, 박경란 (2009).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275-286.
- 이윤정 (2016). 중년 부부의 성인 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4), 51-61.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 정복자, 조성희 (2017). 부부의 마음챙김, 내외 통제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 (APIM)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2), 301-326.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517.

- 정혜경, 김경희, 엄순교, 송미승, 안옥희, 이종화 (2003). 임부의 가족지지와 임신의도 및 산전자가간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3), 319-326.
- 조성경, 최연실(2007).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35.
- 최규련 (2015). *부부문제와 부부상담*. 서울: 신정.
- 최유리 (2013). [Baby & Kids' Brain] 똑똑한 태아와 아기를 위한 두뇌육아법. *브레인*, 38, 46-49.
- 한혜영, 현명호(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 -952.
- 홍중배 (2006). 글로벌시대의 갈등 관리 : 한국인과 미국인의 문화 내 및 문화 간 갈등 관리 전략의 비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6, 168-20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31-1143.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rcoran, K. O. C.,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 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4), 473-48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
-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63-28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 (2006). Dyadic analysis. NY: Guilford.
- Kulik, L., & Havusha-Morgenstern, H. (2010). An ecological approach to explaining women's adjustment in the initial stage of marriag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2), 192-208.
- Kulik, L., Walfisch, S., & Liberman, G. (2016). Spous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marital relations in late adulthood. *Personal Relationships, 23*(3), 456-474.
- Molero, F., Shaver, P., Fernández, I., & Recio, P. (2017). Attachment insecurities, life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rom a dyadic perspective: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3), 337-347.
- Overall, N. C., Girme, Y. U., Lemay Jr, E. P., & Hammond, M. D. (2014). Attachment anxiety and reactions to relationship threat: The benefits and costs of inducing guilt in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235.
- Pietromonaco, P. R., Greenwood, D., & Barrett, L. F. (2004). Conflict in adult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University, Massachusetts, U.S.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 New York: McGraw-Hill

1차원고접수 : 2018. 07. 16.

심사통과접수 : 2018. 09. 11.

최종원고접수 : 2018. 09. 13.

**The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marital quality through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effect**

Su-Kyoung Kang

Gachon University

Hae-Mi Kim

Sesalmaal Researcher

Mi-Ra Chung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marital quality through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mediating effect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81 pairs of pregnant couples in Seoul and Gyeonggi(total 562). APIM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tor-effect of insecure adult affection on marital quality appeared. Second, actor-effect of insecure adult affection on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the partner-effect of pregnant women were revealed. Thir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howe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effect on marital quality. Fourth, both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effect of the indirect path to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marital quality through the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were fou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marital quality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marital quality,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